

故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을 두고 문건 속 리스 트가 연일 매체의 중심에 있다. 리스트의 몇 명 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 제도적, 시스템의 모순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화려한 불빛은 불나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 연예계는 수많은 생명을 빼앗으면서 마치 모든 이들의 영생과 꿈을 이뤄주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린다.



### 불자 세상보기

김 현 식  
대중문화평론가

## 대중 연예계의 명암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그런 지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매체에 자주 오르내린다. 골고루 나눠갖지 않는 문화에서는 착실하게 결실을 축적하기 보다는 대박의 환상이 횡행하게 되고 근실한 노동은 천대받는다. 독식의 달콤한 열매는 크고,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처지는 매우 비참하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 반칙도 일삼게 한다. 실력보다는 편법이 더 우선되기 쉽다. 이런 승자독식이 강한 곳이 대중 연예계다.

대형스타가 독식한다. 많은 스타 지망생들은 대형스타로 파이를 독식하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특히 연예기획사는 이들에게 꿈의 실현보다는 냉혹한 판을 주기 쉽다. 연예계는 비즈니스의 세계이나 공정한 시장질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도(商道)조차 보기 힘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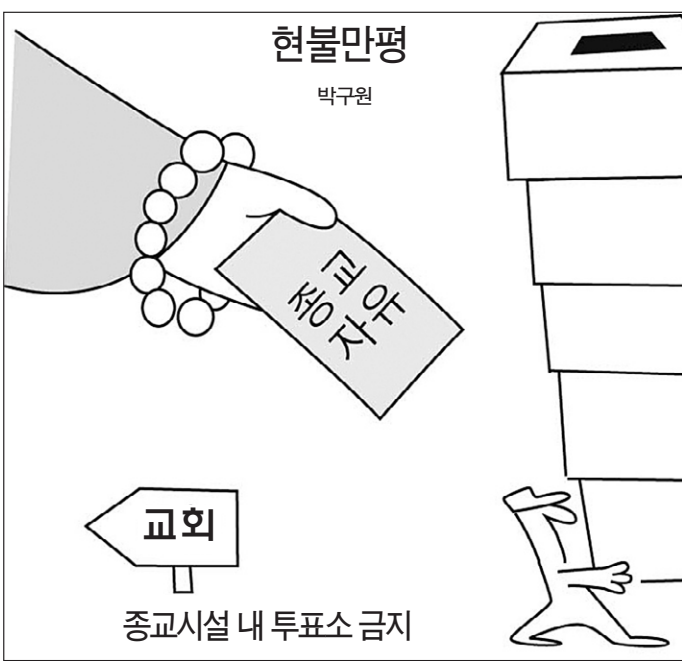
故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에 한국 연예기획사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속도전과 결과주의가 강자 위주로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연예기획사는 일본과 중국의 시스템을 결합했지만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 일본의 연예기획사는 가족적인 개념이나 발골에서 교육, 홍보, 캐스팅 과정을 관장한다. 미국식 시스템은 대형 에이전시에 해당한다. 자기 권리를 위한 자유계약이 핵심이다.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은 신인들에게는 가족 같은 경영을 하면서

권리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누군가의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신인들은 소속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했다. 자유계약이 아닌 종속적인 방식이 됐다. 요컨대 소속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일정하게 주지 않으면서 신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대형스타들의 확보에 집중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히 신인여배우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접대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진다. 문제가 많으니 소속사를 자주 옮기게 된다. 자신의 어려운 신인 시절의 희생을

보상 받으려는 심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소속사 분쟁이 일어나고, 해당 연예인을 두고 법정 싸움이 벌어진다. 그 가운데서도 연예인들은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무엇보다 현재 대중 연예계 시스템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약자들이 강자에게 착취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점이다. 여기에서 착취는 생계에 대한 착취다. 마음의 안정이나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스타 지망생들은 생명이 단축된다. 그 대가는 대형 스타와 대형 투자 자본이 가져간다. 화려한 스타들의 영생은 수많은 불나방들의 생명으로 연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승자의 저주와 같다. 1등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다.故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은 승자의 저주인지 모른다. 과연 1등, 스타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의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화려한 빛을 영위할 수만은 없는 것이 본질이다. 연예인 매니저먼트 구조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관음(觀音)주의와 선정주의로 치달는 것보다는 연예 매니저먼트 시스템의 제도적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온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사부대중 테마칼럼

#### 3월의 테마-처음처럼

어느새 3월의 중순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제법 봄내음을 맡을 수 있다. 춥고 긴 겨울은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 수첩이나 책상머리에 저마다 한 가지 바람이나 결심들을 적어 놓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된다. 하루는 잘 지키고 해나가더라도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지난 학기 불교와 인간 수업을 하면서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버는 어떤 것이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12연기, 8정도 등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108배와 사경을 시작해 보기도 했다. 절을 시작할 때는 몸이 뻐뻐하고, 중간중간에 이르러면 언제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사경을 하고 있으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급기야는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 지금 이 순간 확고한 마음자리 지키자

역시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다. 아! 수행은 정말 쉽지않은 것이다.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불가에서는 출가해 처음에 배우는 책으로 <초발심자경문>이란 것이 있다. 이는 수행자 스스로를 경책(警責)하기 위한 것으로 몸(身)으로는 살생, 도둑질, 간음을 입(口)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독설을 뜻(德)으로는 탐냄, 분노, 시기, 질투 등을 행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참회하고, 그릇된 모든 행위를 돌이켜 마음을 살피 몸과 입과 뜻을 항상 경계하기 위해 지어졌다. 우리네 옛 사자들은 처음 수행에 입문해 깨닫는 그날까지 한 마음(-心인 마음)자리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정진해왔던 것이다.

우리네 삶도 그러하다. 무슨 일을 시작하는 쉬우나 도중에 여러 장애가 생기면 실망하고 곧 주눅이 들어버려 마침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게으른 생각에 젖어 버린다.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까란 마음으로 다른 곳을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 순간, 이곳에서 자신의 확고한 마음자리를 일심으로 지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모든 중생들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손님 같은 번뇌에 휘둘러 그 씨앗을 풀보거나 날아 시키려는 원(願)은 잊어버리고, 마실을 나가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손님을 따라 나간 마실에서 다시 돌아와 본분을 다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그곳에 빠져버려 돌아오지 않는 이도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우습게 알고 나중에 가서 일이 안 되면 그 얼마나 한(恨)이 되겠는가? 이 세상의 일이 어렵지만 마음 한 번 돌이키면 쉽고, 또한 이 세상의 일이 쉽지만 어렵다는 것을 바른 지혜로서 알고 몸과 입과 뜻으로 온전하게 체득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 자리, 마음 자리에서 무한한 지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강향숙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레이프론 공부하는 4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관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써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레이프론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歩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4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20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못 짓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사들이 한결 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가: 30,000원)

-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 著者: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 ◆ 계좌번호: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 패철 보는 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풍수지리 이기

나경사술법

진용원재음

연습용 19층 간략 나경도해상인

이 책 구입하면 www.kbs.cc에서 나경사술법 강의 무료 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진용원재.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천 이상 구입시 전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동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력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청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격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 수 있고
- 정확하여 적용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민, 수리, 음령, 오행에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범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50,000원

### “호타 비결전서(상·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각 권 50,000원

호타암 주지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051)524-9406

## 社說

### 어떤 호미를 들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경남 진영 봉화산에 특이한 관세음보살상이 조성됐다. 관세음보살님이 호미를 들고 나타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호미를 든 관세음보살상은 어려운 시대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극복해 나가려는 원력의 표현이었다.

호미는 잡초를 제거 하고 희망을 심는 불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전통 양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관음보살상이 상징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불교의 모습 우리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인습 등이 모두 격랑을 헤쳐며 급하게 변해왔다.

호미 든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던 그 마음이 잘 지켜진 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변모해 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고 ‘호미질’ 보다는 ‘영통한 것’으로 세간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승불교의 정신은 철저한 대승이다. 현대사회의 지향도 대승이다. 즉, 함께 행복할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호미를 들고 나투신 것이다. 그 5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그 호미의 정신을 오늘날 불교계의 과업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사부대중이 자신을 향해 교단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떤 성질의 호미를 들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 포교 일선의 목소리 경청하라

조계종 포교원장은 참으로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포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다. 더구나 다종교사회에서 포교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조계종 포교원은 현재 다양한 포교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착수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포교원의 업무 역량과 재정적 한계는 너무나 쉽게 드러난다. 예산 편성만 해도 총무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현대사회에서 포교는 재정지원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종단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면 포교정책도 예산확보와 함께 구상되어야 한다. 그래서 늘 포교 현장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대 포교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다 효율적인 포교를 위한 견해를 공유했다. 포교원이 역대 원장들 견해에 귀 기울이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자리에서 역대 원장들이 내놓은 생각은 원론적인 것이었지만 그러한 자리가 마련됐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진단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 되면 현재 포교 일선에서 체크되는 여러 사항들도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

포교원은 이 자리에서 형성된 여론과 아이디어들을 업무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역대 원장들이 지적했듯, 포교는 종단의 정치와 무관하게 주체적으로 꾸준히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포교원이 불교의 미래를 단단하게 다지는 길 가운데 하나가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앞으로도 역대원장들의 견해와 더불어 일선 포교사들의 의견을 크게 들길 바란다.

### 육임학당 5기수강생 모집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어도 직접 오실수 없어서 공부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장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할수 있습니다.

※ 수강료: 수강원료까지 100만원(6개월)

### 육임 CD 판매

-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세음패여부, 취직, 사업사, 돈(구제어부)...
- ▶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
- ▶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려 150여개를 6년 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판매가: 150만원

### 육임운세 보기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www.saju79.com
- 사 무 실: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박옥자)